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78 호
| 2020-03 |
2020.01.22.

최근 수출여건 개선과 회복 가능성 점검

요약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0.3% 감소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나 12월 들어 한 자릿수로 감소폭이 개선되면서 2020년 수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수출 감소는 미중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이 둔화되었고, 반도체 수출이 단가 하락으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으며,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도 미중 분쟁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

2020년 들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중국 주요 경제지표의 호전 추세와 반도체 단가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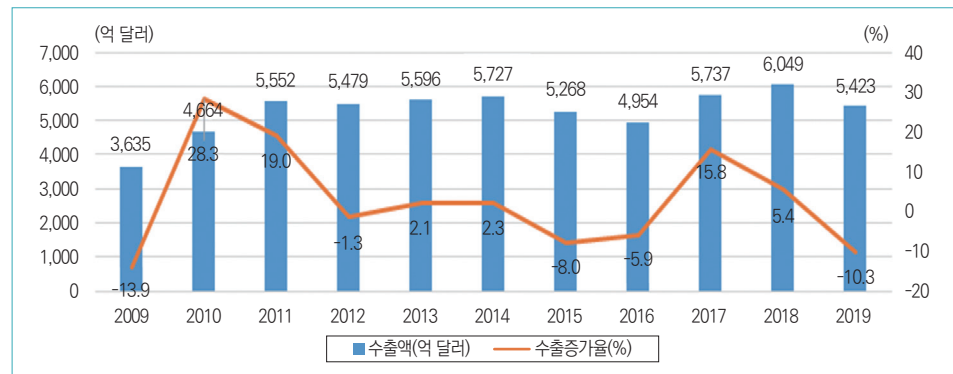
-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는 우선 글로벌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중국은 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로 '바오류(保六)'를 유지하고 IMF도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0.2p% 올린 6.0%로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 예상
- 작년 말 이후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D램 현물가가 1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일부 품목의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 반도체 수출 가격의 회복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단가 회복 등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0.3% 감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

그림 1] 우리나라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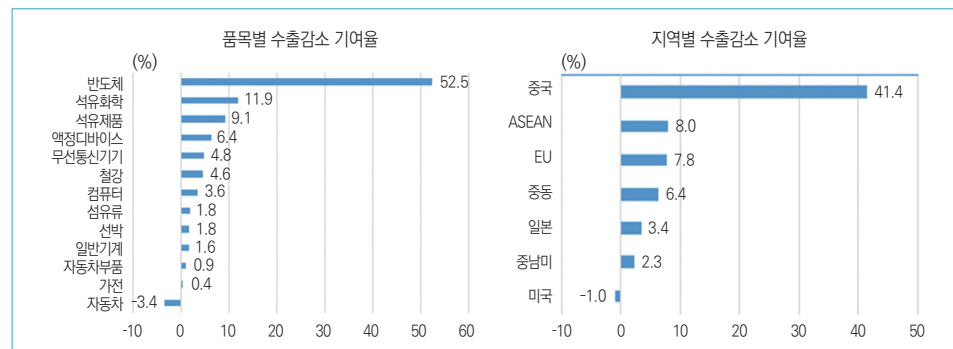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 감소의 52.5%를 차지하였으며, 석유관련제품이 21.0%,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3대 IT제품이 전체 수출 감소의 14.8%를 차지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 감소의 41.4%나 차지하였으며, 중동·아세안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선진국보다 더 크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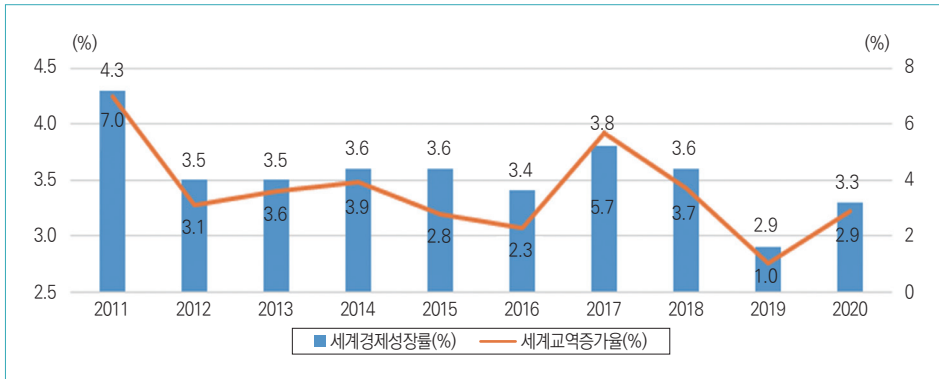
지난해 큰 폭의 수출감소는 미중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경기 및 교역이 연초 예상과는 달리 급격히 둔화되었기 때문

그림 2] 품목별·지역별 수출감소 기여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3] 세계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증가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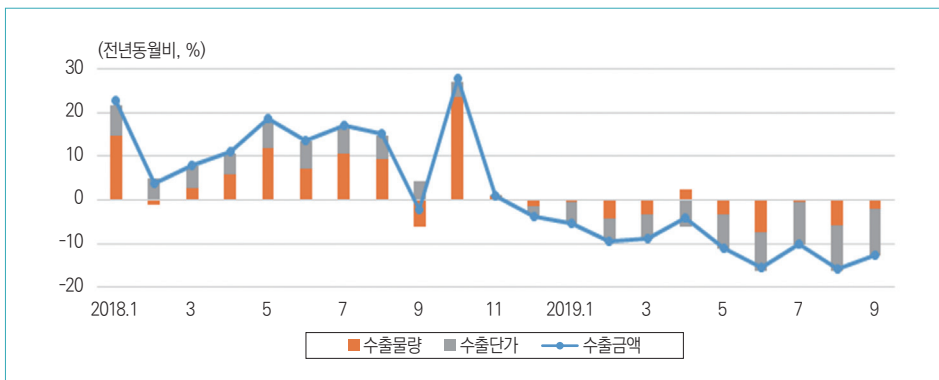
주 : 세계교역증가율은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물량기준임.

-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중 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 및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9%를 기록(2018년 3.6%, IMF)
- 세계교역 증가율도 2018년 3.7%에서 2019년 1.0%로 급격히 둔화

세계경기 및 교역의 위축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로 반도체 및 석유관련 제품 등 주력 수출제품의 단가가 급락한 것도 큰 요인

-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물량이 2.9% 감소한데 반해 단가는 8.4% 감소하여 수출 감소가 주로 수출단가 급락에 의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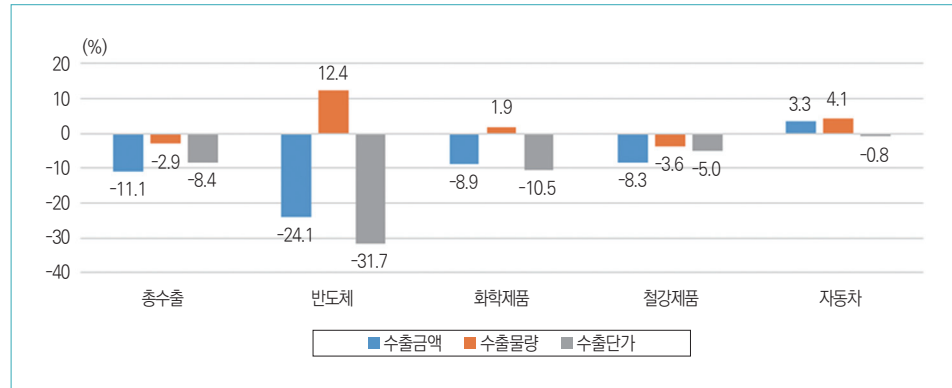
그림 4] 우리나라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단가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출.

그림 5] 품목별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변화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019년 1~11월 실적 기준.

2) 수출단가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출.

-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수출물량이 두 자릿수 증가 하였으나, 수출단가가 30% 이상 하락함으로써 수출금액이 24.1%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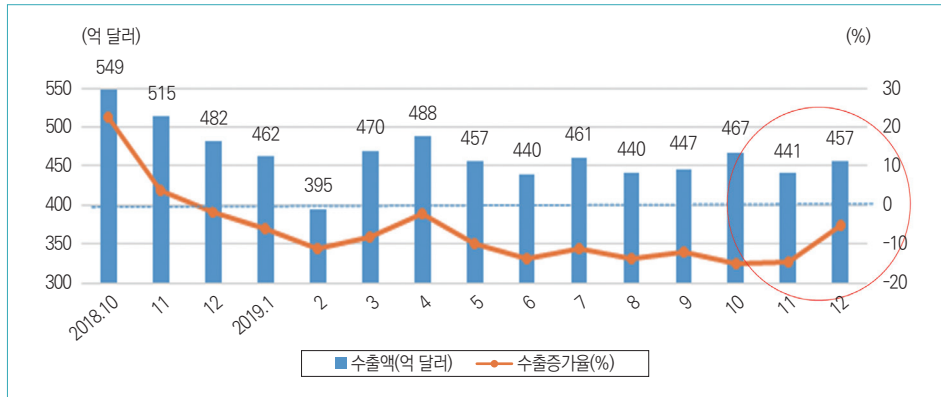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이 미중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하락으로 전년대비 16.0%나 감소한 것도 지난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 이유

-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79.4%(2019년)나 차지하여 중국의 수출 및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 대중 수출의 절반 정도가 반도체(2018년 기준 32.2%), 석유관련제품(19.0%)이어서 수출 단가 하락의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크게 작용

지난해 6월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이 12월 들어 한 자릿수로 감소폭이 축소 되면서 2020년 수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

최근의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중국경제 지표의 호전, 반도체 업황의 개선 움직임 등 지난해 우리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수출의 조기 회복 가능성을 점검

그림 6] 우리나라 최근 수출 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로 인한 불확실성 감소

지난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1단계(Phase One) 합의에 서명하면서 지난 2년 여간 세계경제를 긴장하게 했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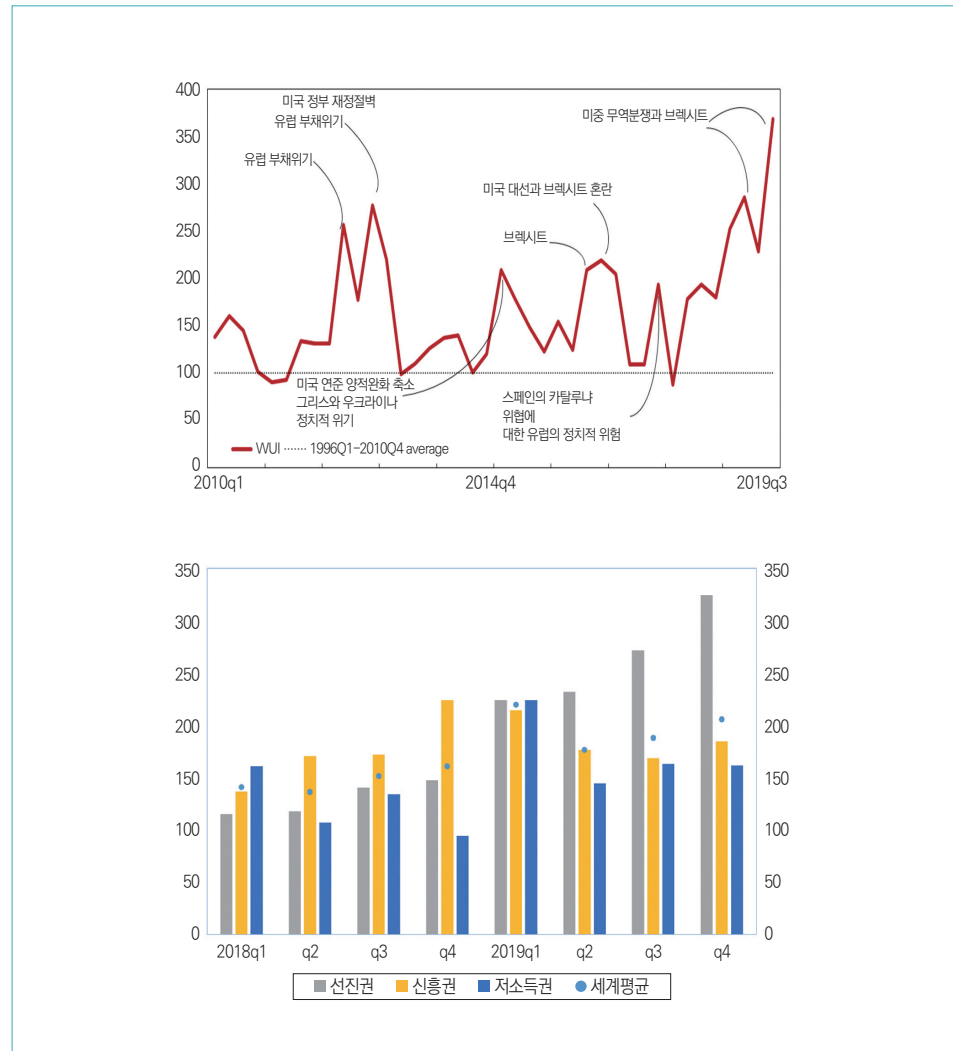
- 1단계 합의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향후 미국의 농산물을 포함한 2,000억 달러어치 상당의 수입을 확대하고 이에 대응해 양측이 예고했던 추가관세 부과 철회와 기존에 부과한 추가관세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
- 미국 재무부는 무역협상 합의 직전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6개월 만에 해제하고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편입하여 해당 조치가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것을 반증

(수출에의 영향)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는 우선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뿐 아니라 우리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세계불확실성지수(The World Uncertainty Index)⁰¹¹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등 보호주의로 인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지역인 선진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는 선진권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를 재개할 유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수출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⁰¹¹ Ahir, Bloom, Furceri(2018)의 방법론에 기반하여 도출한 세계불확실성지수(World Uncertainty Index)는 Economist지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무역관련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

그림 7] 세계 불확실성 지수 최근 추이



자료 : World Uncertainty Index

- 특히,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등 ICT관련 투자가 증가한다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단가 회복을 가속화시켜 우리 수출증가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만, 미중 무역합의 주요 내용인 중국의 대미 수입증가 약속과 관세 철회로 중국시장에서 미국제품에 유리한 수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일부 품목에서 미국제품과의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

-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가 우선적으로는 농산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막대한 규모의 수입

확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등 대중수출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으로 확대된다면 상대적인 타격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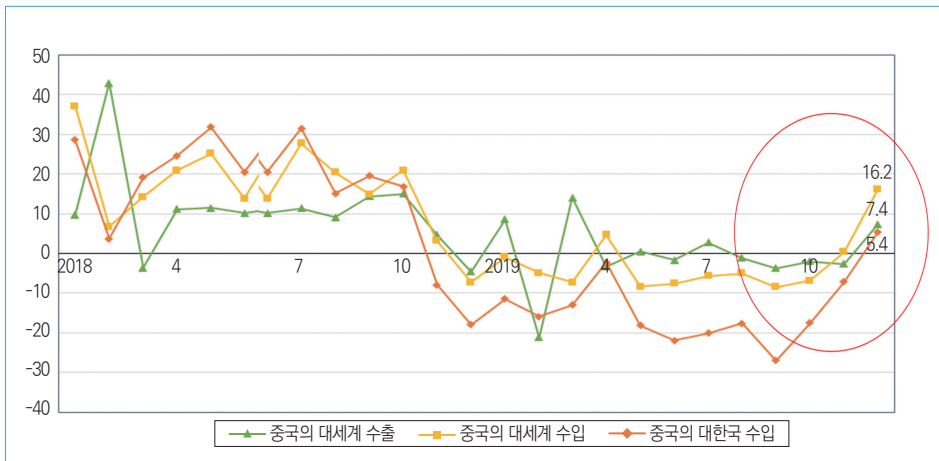
- 그러나 무역 분쟁 해소로 글로벌 무역 규모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 제품 중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우리의 중간재가 포함되어 수출된다면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세 진정에 따른 수출증대 기대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1%로 주요 기관의 전망치에 부합하였으며, 최근 중국의 주요 경기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추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20년 1월 20일 새로 발표된 IMF의 세계경제전망에서도 미중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이전의 5.8%에서 6.0%로 0.2%p 상향 조정⁰²⁾
-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은 10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2월에는 수출이 7.4%, 수입이 16.2%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확대

그림 8] 중국의 대세계 수출입 및 대한민국 수입 성장률



자료 : CEIC.

⁰²⁾ IMF는 1월 20일 2020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0.1%p 낮춘 3.3% 조정한 반면 중국은 0.2%p 상향 조정하였고 우리의 수출비중이 작은 인도에 대해 1.2%p 하향함.

- 중국의 대한국 수입도 12월 들어 전년 동기비 5.4%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
- PMI지수는 10월 52.0 수준에서 11월 53.7로 회복했으며, 제조업 PMI도 2019년 5월 이후 50 이하를 유지하다가 11월 들어 처음으로 50.2로 회복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 호전은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압력과 높은 민간 부채비율 등 내부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감세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저금리에 기반한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효과

- 2019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판매 등 소비 동향과 주요 산업생산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서 중국의 경제상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20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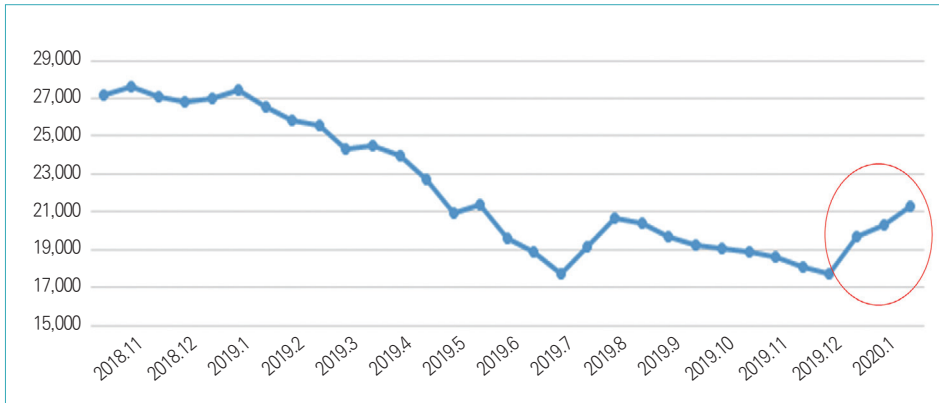
(수출에의 영향)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와 함께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가 완화된다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의 개선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첨단 전자제품뿐 아니라 일반기계와 건설장비 등 그동안 부진했던 품목의 회복 가능성을 제고
-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가 우리의 수출증가로 연결되는 탄력도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성장과정에서 한국의 중간재가 아직은 필수적으로 기여
- 다만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중국의 소비가 개선됨에도 현지에서 글로벌 브랜드 및 중국 기업과의 경쟁심화로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생산품의 판매 및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의 회복에 어려움 예상
- 최근 중국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기업의 제품이 들어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2차전지 등 관련 품목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

반도체 업황의 회복

작년 말 이후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거나 일부 품목의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 반도체 가격의 회복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

그림 9] 반도체 가격지수 추이



자료 : Dram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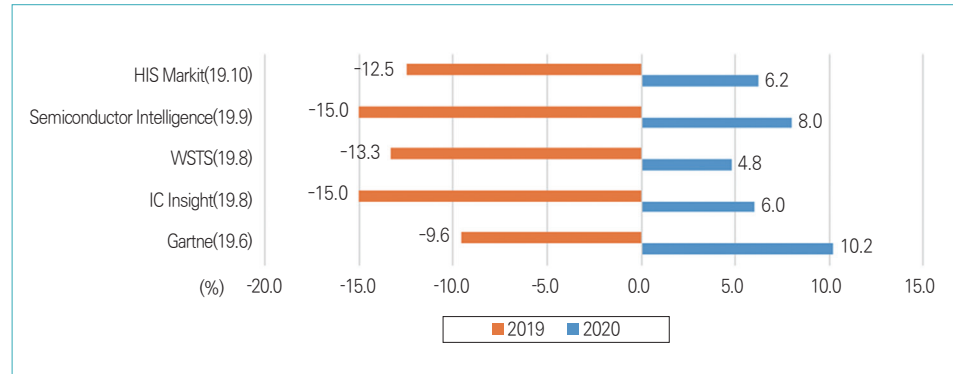
주 : DXI =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인 DRAM Exchange사에서 발표하는 주요 메모리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요 칩들의 가격합을 평균내어 산출.

- 지난 12월 31일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DDR4 8Gb 기준)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3개월 연속 2.81달러를 기록
- 반면, D램 현물가는 11월 중순 이후 1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낸드플래시 가격도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지만 상승세로 전환
- 주요 메모리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DXI지수도 작년 1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반도체 가격 회복을 기대

올 들어 반도체 산업의 회복 전망이 확산된 배경으로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5G 통신의 확산,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 투자 재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수요 창출 등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

- 올 들어 5세대(5G) 통신의 본격 도입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통신기기, 디바이스의 메모리 수요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AI, IoT, 자율주행자동차의 반도체 수요도 점차 확대
-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의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작년 상반기 중단되었던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서버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 윈도우 7 종료로 인한 PC운영체제 변경과 인텔사의 신규 CPU 공급 확대에 의한 PC용 D램 수요도 기대

그림 10]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2020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 각 기관 발표 자료.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감산 등으로 공급 여력이 크게 확대되기 어려운데다, 주요 기업들이 수익성 제고의 공급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IHS Markit, WSTS, IC Insight 등 주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의 10~15% 감소에서 올해에는 5~10%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수출에의 영향)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가격의 회복 정도에 의존

추가로 조선의 경우도 2016년 이후 수주한 고가의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환경규제에 맞추어 EU가 LNG운반선 및 추진선을 점차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는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수출회복세의 탄력을 더하기 위한 정책 노력 긴요

지난해 수출을 부진하게 했던 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임에도 여전히 주요 품목의 글로벌경쟁 심화와 해외생산 확대 그리고 공급확대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회복세가 제한적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단가 회복 등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 미중 간 통상현안의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펼쳤던 수출 활력 제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수출 기업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
- 또한 일부 품목과 시장에 편중된 우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분야의 수출확대를 위해 산업 정책적 노력 경주

김 재 덕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 (연구위원·동향분석실)
 jdkim@kiet.re.kr ktshs@kiet.re.kr
 044-287-3201 044-287-3140

신 현 수



발행인 장지상 / 편집인 조영삼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에서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